

# 이 사 회 의 사 록

(2017년 제1회 임시이사회)

## <개회선언>

- ○ ○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제1회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의안 제274호 : 직제및정원규정 개정(안)>

- ○ ○ ○ : 의안번호 제274호 직제및정원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직제및정원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제안설명
- ○ ○ ○ : 2016년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재단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직제 신설 및 연구인력이 보충되어야 하고 그 외 사업수행 측면에서도 제기능을 하기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5년 연구직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까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연구직제 신설과 정원증원까지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 ○ ○ ○ : 오늘 저희가 결정할것이 연구직을 신설하는것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찬성하는것이죠?
- ○ ○ ○ : 정원확대도 포함 되는것 아닌가요?
- ○ ○ ○ : 3급 6명, 4급 4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채용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오늘은 안나와있네요? 이런건 저희가 알 필요가 없는건가요?
- ○ ○ ○ : 그것조차도 차후에 정해서 다음번 안건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 ○ ○ ○ : 오늘 저희가 결정해야할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 ○ ○ : 오늘은 증원되는 것과 연구직제를 신설한다까지입니다. 정원증원은 차년도 사업계획, 예산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해주셔야 예산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연구직 신설과 관련된 이사회의결안이 2015년 말에 이미 한번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직제와 관련된 개편안이 있었는데 공기업과에

서 의견을 주기를 컨설팅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를 반영해서 정원 같은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연구직이 필요하다는건 오래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 작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연구직에 대한 연구 수요가 나왔고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라는 취지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재단에서 수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항상 연초에 예산이 수립되어 4월, 5월 되어야 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시 업무에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지요. 사실 처음엔 증원 15명을 요청했는데 공기업과에서 한꺼번에 늘리기엔 예산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분야별로 10명을 정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고 일단 정원을 늘려줘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서 공기업과 의견을 수용해서 10명을 재단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일만큼 재단에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도 늘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찾동같은 경우는 한 시정원으로 확보해서 사업과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업무는 수탁해서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했는데 상시업무는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 ○ : 전체 직원에서 연구직과 일반직을 구분하면 몇 명 몇 명이 되죠 ?
- ○ ○ ○ : 지금 이사회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개정후 정원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직과 연구직을 크게 명수로만 구분을 한게 보이실겁니다. 1~4급 안에서 일반직은 33명 연구직은 18명입니다. 그리고 5~6급은 일반직이구요, 거기는 연구직이 없습니다.
- ○ ○ ○ : 그럼 연구 직제를 만든다고 해도 정원은 그냥 내부에서 연구직 18명, 일반직 33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74명안에서 유동적으로 재단에서 필요에 따라 인원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 ○ ○ : 부칙에 따라서 다를거예요. 이게 늘어나서 연구직 4명하고 나머지 일반직 6명을 합해서 정원이 늘어나고 오늘 의결을 하면 연구직에 대한 인사보수규정을 개정한 후에 직급별로 나눠서 확정하게 됩니다.
- ○ ○ ○ : 기능직 6명 감원은 괜찮은건가요?
- ○ ○ ○ : 저희가 15년도에 외부용역근로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소장이라든지 관리인력들은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환을 하면서 퇴사자는 정원 조정을 했어야했는데, 줄이지 못하고 계속 가져오다가 이번에 정

원증원 작업을 하면서 조정을 하게된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 ○○○ : 내부감사 분야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 충원을 하시는 건지? 겸직이었던가요?
- ○○○ : 아 네, 저희는 감사전담 인력은 없었구요, 서울시의 반부패시책평가에서보면 정원대비 0.8명을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예산업무 등을 하면서 기획행정팀 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 증원이 되면서 1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내부감사 분야는 우리 재단의 업무를 아는 사람이 하는게 좋아서 내부 인력 업무를 조정하시고 내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 : 연구직이 일반직 업무도 하면서 하는건가요?
- ○○○ : 아무래도 재단의 특성상 연구직제가 만들어져도 여전히 현장과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제가 전 과정을 같이 지켜봤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직제와 정원은 별 이의 없이 가야하는 부분이고 그냥 제가 우려라면 우려,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재단의 연구가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만하는게 아니라 롤모델을 만들어가는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면서 잡다한 이런저런 일들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조성과 집중을 하는것도 사실은 그런 업무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들과 칸막이를 하는거 그 다음에 그러면 생활밀착형이란 활동은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커질텐데 이런 부분은 잘 조정해야 합니다. 연구직의 역량을 증가시키는게 매우 중요한데 저는 혹시라도 증원을 하고 할 때 앞으로 이 균형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연구소로 출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연구가 없으면 사실은 지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은 저는 이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짊어졌고 우려들이 많았고 그리고 연구자로 가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가도록 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직에서 이런것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과 상관없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 : 네, 저희가 공기업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직제를 신설하고 정원 늘리는 것을 재단하고 오래 논의를 했는데 우선 고민을 했던 건 앞서 찾동과 복지본부와 협업해서 사업하는걸 이야기했는데 정책 연구하고 사업으로 전환하는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분야별로 적합한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하는게 어려운부분도 있고 계속 나가는 분들도 있어서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처럼 연구에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 같건가 아니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시행하는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연구와 현장이 선순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지금까지연구와 동시에 현장사업이 이루어지는게 많아서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책상에 앉아서 좀더 깊이 연구되어야하는 부분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해왔던것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력을 늘려야 뭐가 되도 되는게 있어서 인력을 늘리자는 거고 이번에 더 늘리고 싶었는데 그만큼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 ○○○ : 10명도 많이 늘리는 거예요. 한명 늘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 ○○○ : 근데 6명을 줄이니까 4명 늘리는거 아니에요?
- ○○○ : 약간 허수로 잡혀있었던 부분을 줄이고 변경해서 진행하는거죠.
- ○○○ : 그럼 연구직제를 하는걸 의결하는걸로 하시죠?
- ○○○ : 아까 두분 이사님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책상머리 연구직이 안되도록 규정상 정확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 : 서울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거예요. 현장 기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단 연구가 권위가 있는 거고 전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구요.
- ○○○ : 예전에도 연구직으로서의 안정성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토론도 많이 하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잘 짚어주셨으니까 앞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때 많이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 274호 직제및정원규정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모두 : 네, 의견 없습니다.

- ○○○ :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74호 직제및정원규정 개정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선언>

- ○○○ : 그럼 폐회를 선언하고 사업계획 간담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제1회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포합니다.